



보도자료

2025.6.1(일)

문종태 빛의혁명시민본부 상황부실장(010 3690 1263)

“공항 안전과 지방공항 공공성 강화 위한 정책 절실”

- 한국공항공사 노조, 공항 역할 강화 정책 민주당에 전달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공항,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공공 인프라로서의 공항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에 전달됐다.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은 1일 오후 민주당사에서 노조 관계자들과 민주당 중앙선대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제안식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항 관련 주요 과제들을 설명했다.

임병철 한국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은 “공항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공공 인프라로, 안전 투자가 곧 생명 보호”라며 “지방공항이 단순한 적자시설이 아닌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축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할 가치”라며 “공항의 안정성과 공공성 강화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지향하는 정책방향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연희 전략본부 부분부장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공항 서비스는 공항 종사자들의 헌신과 전문성, 그리고 높은 노동강도임을 잘 알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항,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공항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주당 선대위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도 “지방소멸 시대에 공항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지역 생존의 관문”이라며 “공공성과 안전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

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늘 정책 전달식에 함께한 성준후 빛의혁명 시민본부 상근부분부장은 "국내 15개의 공항 중 11개 공항이 적자 상태이다. 그러다보니 인력 확충에 소극적인 공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비,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안전한 공항, 최고 공항서비스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공항이 되기 기대한다“ 말했다.

또한 임세은 중앙선대위 공보단 민생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이후 안전보다 경영효율화만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이 제주항공 참사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새로운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시하는 원칙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공항공사 노조의 이번 정책 제안은 향후 공약 반영과 입법화 과정에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정책제안식에 한국공항공사 노동조합에서는 임병철 노조위원장, 김길환 사무처장, 조진형 정책국장, 노민형 기획국장, 임찬규 조직국장 등이, 민주당 중앙선대위에서는 진성준 정책본부장, 김세미가 국민참여2본부 부분부장, 성준후 빛의혁명시민본부 상근부분부장, 안진걸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끝/

